

Who are these?

(Isaiah 60:8)

“Who are these who fly like a cloud, And like the doves to their lattices?”

Today's chapter begins, “Arise, shine; for your light has come, and the glory of the Lord has risen upon you” (v. 1). These are the encouraging words of God that call us to wake-up and glow. Why? Because our light has come! There's a glorious song which renders this meaning, “Brightly beams our Father's mercy, from His lighthouse ever more, but to us He gives the keeping, of the light along the shore, let the lower lights be burning, send a gleam across the wave, some poor fainting, struggling seamen, you may rescue, you may save.” Indeed, the Bible tells us, “Nations will come to your light, and kings to the brightness of your rising” (v. 3). This is definitely a blessing of the Messiah, a blessing of the church. The glory of the Lord rises upon those who believe in Jesus Christ. Our calling to “arise” and “shine” means that we must faithfully reveal Christ so that others may see His light.

On this earth, the body of Christ, the Church, is being built. So many people seek Him. Let's praise the Lord and emphasize the secret of God which is Christ. It is His light that makes people want to discover Him. They come far, far from home to find Him. Who are these people? “Who are these who fly like a cloud, and like the doves to their lattices” (v. 8)? They are believers who have seen God's light. They fly like a cloud, in great numbers, and as doves to their lattices, that is, as Spirit led believers to the Church. Jesus is the most wonderful attraction when we life Him up. When Christians march to Calvary, when they take their crosses and experience resurrection life, they find God's love divine.

Those who see such miracles will undoubtedly have many questions. For instance, why are there so many redeemed people, like a cloud? The answer is plain, simple, and easy. The whole world is filled with sins, everyone is a sinner. Jesus' redemptive power is great. It changes our sinful nature into a spiritual nature, it erases our sins, and it makes us righteous in the eyes of God. God's blessings upon His

children are immeasurable. “For of His fullness we have all received, and grace upon grace” (Jn. 1:16). Amen! My brothers and sisters,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is so strong that there isn't a chain unbreakable. His ability to bring people to Christ is insurmountable. And our heavenly home that the Lord has prepared is wide and plenty. There will be so many converted people, like a cloud, who will sing in heaven, “After these things I looked, and behold, a great multitude which no one could count, from every nation and all tribes and peoples and tongues, standing before the throne and before the Lamb, clothed in white robes, and palm branches were in their hands; and they cry out with a loud voice, saying, ‘Salvation to our God who sits on the throne, and to the Lamb’” (Rv. 7:9-11). Do you believe it?

Perhaps some will ask why believers fly, like doves, to their church (lattices). The reason is because this world is so dangerous. The devil is prowling around like a roaring lion, seeking someone to devour (see 1 Pet. 5:8). Also, our time here on earth is too short to be monkeying around. Salvation is too serious a matter to postpone. The winds of the Holy Spirit compel believers to rush, to fly, to their place of refuge. He leads all sinners to safety. Their spiritual desire is for spiritual food. They are starving and thirsty to be fed the Word of God. Like doves that fly straight and sure, believers rush home for comfort. “But we all, with unveiled face, beholding as in a mirror the glory of the Lord, are being transformed into the same image from glory to glory, just as from the Lord, the Spirit” (2 Cor. 3:18). The Holy Spirit leads Christians to behold constantly Christ's divine glory, and this beholding changes or transforms us from one degree of glory to another.

What is the reason they all fly together? Because each believer is in the same common danger. They are all seeking safety. They don't have time to argue. Their shared belief is in seeking one Savior—the One who offers the glories of wonderful heaven.

“All the flocks of Kedar will be gathered together to you, the rams of Nebaioth will minister to you; they will go up with acceptance on My altar, and I shall glorify My glorious house” (v. 7). Believers will go with acceptance to God's altar because He wants to make his altar a glorious place. God says, “I will shake all the nations; and they will come with the wealth of all nations, and I will find this house with glory. The silver is Mine and the gold is Mine, declares the Lord of hosts” (Hg. 2:7&8). Indeed, the splendor of God's church will be glorious, like the kingdom of heaven. How glorious? “Behold, I am going to send My messenger, and he will clear the way before Me. And the Lord, whom you seek, will suddenly come to His temple; and the messenger of the covenant, in whom you delight, behold, He is coming, says the Lord of hosts” (Mal. 3:1). God made the church of Christ safe and glorious. His church shows all the light.

All true believers have found a place of heaven in the church, which is the body of Christ. They find rest, fellowship, and a true home. That's why they fly, dash, and run like a cloud. All these doves escape from the eagle by coming to safety in the place of Jesus. In church, they find everything because Christ is everything. His dwelling is so lovely that just as the birds who can nest in the Temple, so believers find joy in raising their children in the church (see Ps. 84:3). They find true brothers and sisters, all converts from sin.

Who are these people individually? Some are children, students, old-time believers, foreigners, strangers, returning backsliders, forgiven murderers, and even answers to prayer. How about you? Are you one of these? Do you have reason to hurry, to fly? Come to Jesus first. Then don't delay in coming to His church. “They will come trembling like birds from Egypt and like doves from the land of Assyria; and I will settle them in their houses, declares the Lord” (Ho. 11:11). Amen! 🙏



김성권 목사

그들이 누구뇨?

(사 60:8)

“저 구름같이, 비둘기나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빛을 전하는 자들

오늘의 본문인 이사야 60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1절). 이 구절에는 일어나서 빛을 비추도록 우리를 부르는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우리를 향해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하십니까? 바로 참된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등대 길아길에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 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커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참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방은 네 빛으로, 열왕은 비취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3절). 이것은 메시아가 도래하는 축복을 명확하게 나타낸 것입니다. 주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위에 떠오릅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비추어라”는 뜻은 우리에게 어떤 의의의 미를 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드러내야만 한다는 것이며, 다른 이들에게 그의 빛을 보게 해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자들

이 지구상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주장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발견하고 싶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들은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 저 멀리에 있는 자신들의 보금자리로부터 나아옵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저 구름같이, 비둘기나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8절). 그들은 하나님께 비추시는 빛을 보았던 신자들입니다. 그들은 커다란 무리를 지어 구름같이 날아오며, 비둘기처럼 그들의 보금자리(격자창)로 날아옵니다. 그것은 마치 성령께서 신자들을 교회로 이끌어들이셨던 것을 보는 데 합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신들의 생애를 예수께 올려놓을 때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분은 가장 놀라운 흡인력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갈보리로 행진할 때와 자신들의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생명을 경험할 때, 그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발견합니다.

새롭게 변화되는 자들

이와 같은 기적을 바라본 사람들은 의심할 여지없이 많은 의문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왜 구속된 자들이 구름같이 많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 대답은 명료하고 간단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은 죄인으로 가득하고,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예수의 구속적 권세는 위대합니다. 그 권세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성령

한 본성으로 바꾸고, 우리의 죄를 소멸시키며,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자들로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부으시는 은총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니라”(요 1:16).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권세는 매우 강하며, 그것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 어떤 쇠사슬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시는 성령의 능력은 인간으로서서는 능히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늘에 있는 본향, 주께서 예비해 놓으신 곳은 넓고 충분합니다. 그래서 구름처럼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게 될 것이며, 하늘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계 7:9-11). 여러분은 이것을 믿으십니까?

성령에 이끌림 받는 자들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왜 믿는 자들이 비둘기처럼 그들의 교회(격자창)로 날아오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이 유희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벧전 5:8). 또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원소처럼 주변을 뱅글뱅글 지내기에 너무나 짧습니다. 구원을 얻기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방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의 바람은 믿는 자들을 돌진하게 하고, 날아 오르게 만들며, 그들이 피난처로 향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성령은 모든 죄인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합니다. 또한 성령은 그들로 하여금 성령의 소유를 일으켜서 영적인 움직임을 사모하게 만들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굽주리고 목마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꼭바로 분명히 날아오는 비둘기처럼, 믿는 자들은 참된 위로를 넘치는 보금자리로 돌진해 옵니다. “우리가 다 짐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기 곧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음이니라”(고후 3:18). 성령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신적인 영광을 계속적으로 바라보도록 인도하십니다. 또한 이러한 바램은 우리를 더욱더 영광스러운 단계로 바꾸고 변화시킵니다.

영광스러움에 동참하는 자들

그러면 그들이 모두 함께 날아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믿는 자들은 공통적인 위험 안에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안전을 추구하고 있습니

다. 그들은 논의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들의 일치된 믿음은 오직 한 분이신 구세주를 찾는데 있습니다. 놀라운 하늘의 영광스러움을 제공하시는 한 분이신 구세주 말입니다. “계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이고 느바웃의 숫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단애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7절). 믿는 자는 하나님의 계단에 받아들여지는 자로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이들은 자신의 계단을 영광스러운 장소로 만들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라 내가 영광으로 이 전에 찬만개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와 같이니라. 온대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와 같이니라”(겔 2:7-8).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광채는 하늘의 왕국처럼 영광스러워질 것입니다. 어떻게 영광스러워질 것인지 궁금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와 이르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라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출현한 그 전에 임하리라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말 3:1).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안전하고 영광스럽게 만드셨습니다.

주께서 계시는 교회에 머무는 자들

모든 참된 신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사는 하늘의 처소를 발견합니다. 그들은 안식과 교제와 참된 본향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날아오고 손잡듯이 대들며, 신속히 달려오는 이유입니다. 모든 비둘기는 예수께서 계신 곳에서 안전함을 누림으로써 독수리의 날카로운 부리와 발톱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들은 모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계시는 곳, 새들이 깃들고 새끼 돌 보금자리까지 얻을 수 있는 성전은 매우 사랑스러운 곳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자라는 기쁨을 발견합니다.(참고 시 84:3). 그들은 참된 형제와 자매를 발견합니다. 그들은 모두 죄로부터 돌이킨 자들입니다.

당신은 누구뇨?

개인적으로 이들은 누구입니까? 어떤 이들은 자녀들이요 학생들이며 오래된 신자들이거나, 외국인들이거나 나그네, 망명된 사람들이거나, 의서받은 강도이거나 심지어 기도하 응답되어 그리스도께 나아온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 중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은 급하게 서둘러서 날아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예수께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주의 교회에 들어오는 일을 늦추지 마십시오. “저희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저희로 각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내 여호와와 같이니라”(호 11:1). 아멘!

방글라데시 단기선교 이야기 - 둘

순종

김서영 (단기평신도 선교사)



는 것처럼, 높아지려는 나의 교만과 숨기고만 싶은 나의 죄성으로 딱딱해진 마음을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말길 때 비로소 나를 자세히 알게 되었고 굳은 자아를 부수시고 열린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 열린 마음을 통해 예수님처럼 다른 이를 위해 나를 낮추며 사랑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것이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순종의 모습을 통해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 하셨다. 두려움 대신에 대담함을 주셨고 근심과 걱정 대신에 평안과 기쁨을, 분노와 시기 대신에 온유와 겸손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통해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질 수 있었다. 여러 가지 내적인 고뇌는 나를 더 이상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길이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모든 아픔과 상황을 내려놓기를 그분은 바라고 계셨다. 한 사람을 사랑할 때에도 나는 그를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나의 삶에 성령을 부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겨낼 힘을 주시는 주님을 느낄 수 있었다. 순종함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기를 소망한다.

세계관 10

가능성이 있기에 인간이다

흔히 듣는 욕 중에 '개만도 못한 X'이라는 것이 있다. 이 욕은 다른 어떤 욕보다 심한 욕이다. 일상적으로 보면 농담삼아서 할 만큼 쉽게 여겨지고 있지만 이 욕은 인간의 존제자체를 부정하는 무서운 말이다. 인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보다 더한 욕이 어디에 있는가? 인간과, 다른 피조물과의 차이는 단순히 생물학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진화론자들이 인간의 진화를 말하는 것은 생물학적 기능의 차이일 뿐이다. 쉽게 말하면 다른 동물들과 똑같은데 단지 기능상 더 뛰어나다는 말이다. 이것이 바로 가장 심한 욕이다. 인간을 인간으로 말하지 않고 다른 동물들과 같은 존재로 보는 것이다.

인간 이외의 다른 피조물들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들의 존재는 바로 '그때' '그순간'에 확인될 뿐이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삶에 책임을 져야 한다. '나중'과 '후에'가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다른 피조물과 인간이 다른 점은 '가능성'이다. 다른 피조물에게는 '본능'이 있을 뿐 '가능성'이 없다고 하지 않는다. 가능성이란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인간은 어떤 사람과 같이 되는 무엇을 원하고, 어떤 것을 가진 무언이 되기도 한다. 그런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다. 그것은 가능성이 아니라 본능에 불과하다. 내 민족을 위한 것은 동물도 마찬가지다. 눈앞에 보이는 먹이를 잡으려는 동물을 보면서 우리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 않는다.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질 가능성은 본능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가능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다. 진정한 가능성은 제한된 것을 넘어서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하는 것이다.

성령은 하나님을 인간을 사랑하셨다고 한다. 신이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가능성이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고 한다. 그리고는 모든 인간들이 믿을 수 없는 방법과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 오셨다. 그리고 나보고 이것을 믿을 수 있느냐고 하신다. 내가 주님을 믿는 것, 이것이 나의 마지막 가능성이야. 당신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 구원받을 가능성, 영생의 존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세상의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가능성이 아니라 본능이다. 가능성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가능성이 있기에 인간이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롬 4:18) (다음 주에 계속)

(안창덕 목사)

카미단 기간 동안무슬림들을 위해 역(逆)으로 기도하자!

제9일 11월 25일(주일)

인도네시아를 위한 기도

1. 문화적, 인종적 다양성 때문에 가장 안정됐을 때조차 통치하기 어려운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무슬림 국가이다. 복음전파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수천 개의 100% 무슬림 마을과 지도자들에게 성령께서 복음의 빛을 비추시도록 기도하자.

제10일 11월 26일(월)

핍박받는 교회들을 위한 기도

1. 지금도 수많은 교회는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과, 직업이나 교육의 가질, 목발이나 주방의 위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형제 자매들이 지역 관리로부터 계속적으로 감시 당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마음의 확신과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하자(골 1:14, 4:6-7). 기도하자.

제11일 11월 27일(화)

마다가스카르의 무슬림들을 위한 기도

1. 마다가스카르의 교회들이 무슬림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고 증보하는 일에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또한 많은 무슬림과 정령 숭배자들이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일 기회를 갖도록 기도하자.

제12일 11월 28일(수)

팔레스타인을 위한 기도

1. 성령께서 진리를 찾고 있는 무슬림들을 모아서 그들이 다른 무슬림들에 대한 두려움 없이 서로 대화할 수 있도록, 또한 크리스천 사역자들이 성령께서 만지시는 자들과 접촉할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하자.

2. 팔레스타인 크리스천들이, 그들의 무슬림 형제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길 원하는 새로운 열정을 갖게 되도록 기도하자.

제13일 11월 29일(목)

인도의 불바이(봄바이)를 위한 기도

1. 성경이 대부분의 중요 언어로 번역되었지만, 무슬림들의 방언으로 된 성경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가장 많이 쓰는 무슬림 언어인 우르두 방언으로 성경이 번역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 팀이 형성되어서 이 방해를 이겨내고 성경 번역 작업을 완수하도록 기도하자.

제14일 11월 30일(금)

사하라위 사막에서 사라진 민족을 위한 기도

1. 사하라위족이 예수님을 통해 말씀이 그들에게 진리인 것을 깨닫게 되도록 기도하자.

제15일 11월 31일(토)

진스카르 계곡의 무슬림들을 위한 기도

1. 진스카르의 무슬림들은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하였다. 그들 중 크리스천이 존재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고 있다. 전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보고도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 신재적, 영적 도전을 치명할 방법이 있고, 이 숨겨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기 원하는 기독교 사역자들을 진스카르 계곡으로 보내시도록 기도해주시라 13:2).

*위의 내용과 기도제목은 예수산도단의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에서 발췌하여 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기도제목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뒤 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신 현우' 형제를 소개합니다



81년생 대학생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과 충현교회에 나오곤 했는데 이번엔 초등학교 때 친구와 함께 나와 등록하였습니다. 새가족부에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고인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더 깊이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갔으면 합니다.

'양 호진' 자매를 소개합니다



한국통신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청정동료인 언니의 전도로 충현교회에 나왔습니다. 새가족부에서 모두가 따뜻하게 대해 주셔서 잘 적응할 수 있었고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불러주셨던 축복송과 축복의 기도는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면서 받은 사랑을 나눠 줄 수 있는 주님의 딸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충현교회 가족들에게 감사합니다.

이혜선 (대학부 새가족 통신원)

천국 모델 하우스

김정선 (신혼가정부 교사)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사람들은 직장 때문에 주말에만 만나는 우리 부부를 보고 '어머, 아직도 신혼잔제요?'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이 말하는 신혼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아마 그들의 말 속에는 '신혼' 하면 항상 새롭고, 보고 싶어 그리워 하고, 아기가 자라고 달콤한 시절을 연상하는 것이 아닐까?

남편과 함께 신혼가정부 교사로 봉사하면서 날마다 새로운 신혼부부를 만나다 보니 지난날 신혼시절의 아름다웠던 추억들과 가슴앓는 추억들이 하나로 혼합되어 안개처럼 아련히 피어 오른다.

남편은 월요일 새벽이면 잠이 많은 내가 행여 새벽 컵 차를 놓칠까봐 잠을 거의 이루지 못하곤 했다. 마치 아버지가 딸에게 하듯 세심한 부부까지 차를 써주는 것이 예전에는 귀찮기도 하고 또 당연하게도 느껴졌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보니 남편의 변함없는 그 저극 정성 때문에 오늘날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매 주마다 왕복 8시간이 넘는 거리를 출근하지 않았나 싶다. 새벽에 떠나는 나를 보내기 아쉬워하는 마음으로 내 손잡이를 꼭 잡고

기도해 줄 때면 남편의 사랑이 가슴 깊이 전해져 아침을 먹지 않아도 배부른 것 같았고 그것이 일주일 동안 삶의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항상 이렇게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주말이면 나는 내대로 직장 일로 지쳐 피곤한 모습으로 서울에 올라와 편히 쉬 있을 기대했지만, 남편은 남편대로 내가 아이들과 부모님에게 그 동안 해주지 못했던 것을 주말에 한꺼번에 채워주기를 요구하고, 그러다 보니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많았다. 이런 날들이 반복될 때면 내내 주장을 이기거나 너무나 힘들고 긴장이 되어 어떤 때는 서울에 올라가고 싶지 않을 때도 많았다. 남편과 사소한 다툼 끝에 화해하지 못하고 그냥 내려온 날은 일주일음 침묵작전으로 전화 한 번 하지 않고 지낸 경험도 있다. 회원을 앞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입술로는 잘 가르치면서도 정작 나 자신은 말 그대로 살지 못했음을 돌아보니 부끄러운 마음에 췌구멍이라도 있으면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든다. 무엇보다 남편과 남편과의 관계가 좋지 않거나 부모님과 문제로 마음이 편안하지 못할 때는 신혼가정부 교사라는 직분이 내전 너무나 부담스러워 그만 두고 싶을 때도 많았다. 그런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해주시며 다시 한번 연약한 나를 세워 주셨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 서로가 돕는 배필로서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이기적인 배필로만 생각했을 때는 항상 문제가 되었던 것 같다. 이러한 나의 미숙한 경험을 바탕으로, 가정문제로 힘들어하는 신혼부부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함께 기도하면서 양부리를 돌보는 목자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해아릴 수 있도록 가정사역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한다.

사탄은 틈만 있으면 온갖 유혹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세우신 우리의 소중한 가정을 허물어 뜨리고자 한다. '선 줄로 알겠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는 말씀처럼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공사 중'인 우리 가정을 말씀의 반석 위에 튼튼하게 세우고 삶의 현장 속에서 훈련받아 천국의 모델 하우스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

No.07 {은혜소녀, 주의 길을 따라 가다}

글:구영민



문자적, 신체적, 사회적, 영적은 다같이 중요합니다. 신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새로 찾은 행복

최희경 (신혼가정부)



어릴 적 아주 작은 개척교회에서 처음 만났던 신랑과 몇 년 뒤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었고, 서로의 달라진 모습에 끌리게 되면서 조금씩 사랑을 키워가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처음엔 정말 행복했고 매일같이 감동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싸우는 날과 싸우려는 일이 갈수록 많아졌습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던 우리는 엄청난 전쟁(?)을 치루어 했고 많은 상처를 주고 받으며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였을까요? 헤어질 고비도 여러 번 넘긴 끝에 사건 지 5년 만에 결혼 날짜를 잡았고, 어머니의 권유로 결혼 한 달 전부터 충현교회 새가족부에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되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던 연애 시절과는 다른 결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신혼가정부를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 아래 거둔다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말씀 안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기도도 굳건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생활도 많이 변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신랑의 변화는 정말 큰 것이었습니다. 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남자의 차이를 신랑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였고, 결혼 전에는 몰랐던 어머니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어졌습니다. 저 또한 작은 것에 서운해 하고 무엇을 해주기만을 바라던 마음에서 늘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작하는 입장에서 결혼의 의미와 부부로서의 역할과 자세를 배운다는 것은 결혼생활이라는 건축물의 기초를 다지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을 신혼가정부에서 배우지 못했던 많은 시간을 보낸 후에야 어땠는지 터득한 후배에게 경고합니다.

결혼을 강요하는 바깥 세상과는 달리, 서로의 안부를 묻고 진심으로 걱정해 주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한 가족이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연애시절의 어려움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젠 우리 부부에 허락하신 귀한 선물 '이래'와 함께 믿을 안에서 기도와 찬송이 울리는 가정으로 그렇게 소중한 예쁘게 가꾸어 나가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첫 가정예배

박은정 (신혼가정부)



98년 10월 1일, 이제는 혼자가 아닌 둘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내 옆에는 이 사람이 있을 것이고 고통과 기쁨도 이 사람과 함께 나눌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혼자서 누리던 삶을 이제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은 것이다. 모든 결혼한 여자들이 결혼식 날을 떠올리라면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설레고 기뻐했던 그 순간을 떠올릴 것이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갈릴릴 홀이 왜 그리 크고 넓었지, 그 멀리던 순간은 뒤라 표현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때 그 기쁨보다 더 소중한 내 가슴 속에 남은 순간이었다.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갔을 때, 난 기념식을 먹고 제해 화장실을 들락날락거려야 했다. 신랑은 나의 손을 쥘거 주며 내 손을 잡고 이제 부부가 되었으니 함께 기도를 하자는 것이다. 사실 남편은 군복무를 하면서 신앙 생활보다는 세상 속에 많이 빠져 있었다. 결혼을 약속하고 내가 다니던 교회에서 충현교회로 옮겨 새가족부부터 청년부 신혼가정부의 결혼준비반을 거치는 동안 그 당시 열심을 보인 적이 없던 사람이 나의 손을 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한나 남편 같았다.

하나님께서는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더 소중히 여기신다 했던가! 하나님은 이 사람을 다시 찾으신 것이다. 어떠한 형식도 없었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그렇게 첫 가정예배를 드렸다. 어떤 순간보다도 그날 남편 모습은 믿음직스러웠고 앞으로의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이제 한 가정의 가정으로서 자기의 의지를 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막 시작하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설계해 보겠다는 남편 말은 나의 맘에 정말로 큰 감동을 주었다. 그 약속은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지켜지고 있다. 첫아이를 가졌을 때 그 아이를 위해 믿음을 그치지 않고 우리는 밤마다 기도했다. 그것은 어떠한 대교보다도 소중했다. 23개월이 된 우리 아이가 식사 전, 혹은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아이에게만 그릇 된 것을 주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아이가 세상을 배우기 전 하나님께 먼저 알고 더없이 소중한 교육이 된 것이다. 두 사람이 상이 모인 자리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셨으니 그날 신혼여행지에서 드린 나의 첫 가정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이날까지 우리 가정을 인도해 오셨다.

구역 일지

그러면 어떠하뇨?

15교구 신령 4구역 / 구역장 : 오영자 집사



지난 16일(금) 신림 4구역에서 나는 구역예배 주제는 '인간의 죄성'이었다. 본 문(골 3:9-18)은 인간의 죄성을 한 죄의 용서도 없이 매달리게 돌아본다. 아무리 무서우거나 존경하거나 아버지가든 몸을 주지 않고 매달리게 돌아보면 원망이 나오거나 반항을 하기도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 그래서 이 본문은 항상 조심해서 읽는다. 그러나 15주 주일 구역예배를 그 말씀 속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들이 죄인임을 이루면 불만없이 시인했다. 잘못을 시인하는 어린이를 본 격이 있는가?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이라 누구나 인정할 수 있었지만 어른이 잘못을 시인하는 것만큼이나 아름다운가!

초점은 죄의 의미에 맞춰졌다. 구역원들은 죄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한다. 그렇기 때문에 구역예배에 모이기 힘쓰라는 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보고 구역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것도 순종하지 않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주장한다. 그래서 직장도 오후 시간으로 미뤄가며 구역예배에 참석한다.

말씀은 또 대한민국의 통치자로서, 영의 양식을 먹으려는 명령에 온전히 순종치 못 한 것에 대한 반성과 세상 사람 많은 데 잘 꾸미고 잘 꾸미고 자랑한다 하나니
 는 시기에 경건한 모양을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 등으로 적용되었다. 한 집
 사남은 자식들에게 짜깁된 것을 자신의 죄라 고백하기도 했고 또 여러 집사남은 하
 나님의 뜻을 파악하지 못하고 자신의 소원대로 아들을 갖기만을 기도했지만 그것
 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한 것이 아니었다는 고백을 하기도 했다.

이렇게 신임 4구역원들은 자신들의 죄성들을 속속들이 고하고 결론을 지어
나고, 구역원들의 결론은 '전도'에 관한 것이다. 죄성과 전도가 어떻게 관련 되
느냐고 질문하게 될 지 모르지만 신임 4구역 4구역원들이나 가능한 결론이다.
전도는 가장 중요한 주님의 명령이며 이것을 행하지 않는 것은 죄였기 때문이었다.
구역장은 이런 결론을 내리면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이 마지막 만남일
수 있다는 각오로 전도에 임하는 말을 하며 구역 예배를 마쳤다.

구역예배를 마칠 즈음 다른 구역으로 간 구역원이 교제를 위해 얼굴을 비쳤다. 이런 좋은 말씀과 솔직한 고백들이 있으니 어찌 서로를 쉽게 잊을 수 있으랴. 떠난 사람이 이렇듯 찾아오는 것은 구역예배에 참여했던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권요섭 기자)

다음주일 찬송

514장 누가 주를 따라

프랑스 라비르의 바티스트가 1879년 10월 역대신 12년8월의 다비에어 우리 당신에게 제출하고
 그 이후의 아들이 우리의 사생아로 다비에어 들은 이비레를 병당하고 지 사임 중에서 사임 일명, 그리고
 30년도의 우리 아바마가 사생아로 속하여 다윗을 도둑간 것이 되는데 이것을 알면 또한 왕의
 그리스도의 편에서 적대인과 싸울 것이 누워야 하는 상으로 적대인과 하는 것은, 또한 그
 죽어 가는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한 전쟁이다 그 군 민 자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
 기를 가지 한다

1절 누가 주의 편일까? 누가 대항을 삼길까? 누가 주의 협력자가 되어 다른 생명을 주께로 데려 올까? 누가 세상 편에서 떠날까? 누가 원수를 대항할까? 누가 주의 편에 설까? 누가 주를 위해 나아갈까?

후렴 “누가 주의 편에 서 있나? 누가 대항을 삼기나? 누가 주의 협력자가 되어 다른 생명을 주께로 데려올까? 주의 빛난 구원과 거룩한 은혜로 우리는 다 주의 편이로다. 구주여, 우리는 당신의 것이니이다.”

2절 '군대의 전투가를 드높이 부름은 영광 얻기 위한 것이요, 면류관과 영예 얻기 위함도 아닐세. 다만 주가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주장하시는 사람 때문이라, 주께서 호명하시는 자를 주의 편에 서야하리라'

3절 "싸움은 치열하고 편수 마귀는 강해도 대항의 군대 누가 당하라. 주의 군기 주위에 뭉친자들의 승리가 확실하다. 주의 진리 불변하니 승리 확실하다." 이 찬송의 대의(大意)가 '악과 싸움에서 우리는 주의 편에 서서 확실한 승리를 얻는다'는 것이

므로 군인답게 씩씩하고 힘있게 불려야 한다. 승리한 용사처럼... (찬양위원회)

(찬양위원회)

+ 양호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렘 29:11-13)

1교구 박진형 집사(남77세) 당뇨 합병증으로 뇌 속에 고름이 생겨 제거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 부위가 빨리 회복되고 다른 증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5교구 한정자 상도(여61세) 혈소판 감소증으로 자가 치료 중입니다. 병이 치유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최수영 집사(남55세)** 간암 수술 후 자가 치료 중입니다. 암이 재발하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6교구 권요셉 평신도 선교사(남26세) 폐결핵과 폐에 물이 차 늑막염이 생겨 재입원하여 치료 중입니다. 짧은 대화도 힘들 정도로 기침이 심합니다. 체력이 빨리 회복되어 병이 치유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13교구 황순기 집사(여49세)은 몸이 마비되는 「근육위축성 측삭병」으로 자
가에서 투병 중이나 시간이 갈수록 병이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환우와 가족
들이 낙망하여 지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병의 치유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
오.

14교구 최은희 성도(여33세)
 실명 위기에 있어 1월 18일 수술할 예정이나 수술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
 되기를 작정기도 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밝아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가장 고통스럽고 어려운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하십니다.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요 은혜를 받을 만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음을 다하여 그분 앞에 나아갑시다.

[인물 중심의 교회사 순례] 맺으면서

성령을 따르는 신앙주의자 제자들

그 동안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여러 종들의 삶과 그들의 가르침을 살펴보았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던가? 한 마디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었다.

제자들의 근본적인 특징은 신앙이다. 신앙이란 믿은 하나님을 자신을 위해서 행해 놓은 일을 참으로 사실로 여기고, 한 일이라고 믿는 믿음을 말한다. 하나님이 행해 놓은 것을 이제 우리도 행할 수 있다. 그 모든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그러면 자신의 것이 된다. 그러면 우선 자신의 속에 별로 자랑할 것이 없어서 자신의 힘으로는 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된다.

초대교회부터 현대까지 언제나 신앙생활에 활력을 주고 기독교를 확장시킨 선행은 오직 이 제자들의 전통일 뿐이다. 그것은 새로운 행함을 교회에 제시하도록 하고 조롱 이름없이 일하게 했으며 시무제들을 만들어내며 비서들을 통해 의해서 밝힘을 받기도 했다. 초대교회 순교자들의 기록에서 제자들의 전통은 빛을 발한다. 이단사설에 대항 싸웠던 아거스틴 그리고 바른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한 크리스소스톰, 제롬 등에서 우리는 제자들의 전통을 본다.

중세에 들어와 교권은 국가와 아합하거나 경쟁할 때 많이 명상하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이름들이 서구사를 중에서 세가지의 전통은 얻었다. 이들 중 하나가 배네티트라가 프랜시스같은 이들은 개혁을 시도한 것이다. 종교개혁은 이러한 전통이 폭발한 시기였다. 루터는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인간의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리고 칼빈은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자비로운 주권을 사람들에게 부패히 설했다.

이런 전도는 청교도와 경건주의가 함께 동행해서 나타났고 미국의 부흥운동과 웨슬리의 선교에서 보더라도, 여러 차래의 대각성은 분명히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이러한 대각성은 프린스턴에 있는 그레그스의 통찰을 통해서 신학적으로 정리되었다. 영광주의 이질들은 우라니아에게서 나타난다. 빛이든 대부흥 시기에 사람들은 거룩한 마음으로 우라니아의 가장 어두운 시기를 보았어 믿는 것을 이끌어 소망을 주었다. 이제licht와 6.25동안 두 시원의 시기에 저자들은 순교하면서 우라니의 뜻을 완전하게 나타내다. 덕분에 우리도 구원을 받게 되었어! 감사하-

제자들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감추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이들을 통해서만 일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유업에 참여할 이도 제자들이다. 이제 우리도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할 지 분명해졌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런 사람들이다.

(김기홍의 '천국의기둥')

강도정

김성겸 (전도사, 중동2부 부지도)

임시 철이 될 때마다 저는 생각이 하나 있다. "애들이 불쌍하다". 이런 뉘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공감하는 이야기이다. 사회적·교육적인 문제를 지적할 수 있겠으나 그리스도인은 그 표면 아래에 깔려있는 문제를 보아야 할 것이다. 왜 천재와 같은 입시제도가 탄생하고 만 것일까? 모두 다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미래를 보장 받으려 하는 반면, 대학이라는 공간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비약적일지는 모르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무엇이 되려는가' 하는 물음과 결부되어 있다고 본다.

내가 속해 있는 중동2부 아이들은 아직 입시 현실에서는 멀지만, 곧 그들도 그것을 경험할 달라고 한다. 하지만 그렇게 달려가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무엇이 되려고 그렇게 뛰어나?" 하고 묻고 싶다. 하지만 아이들이 뭘 알까? 오히려 그렇게 가르치는 어른들에게 물어야 할 것 같다. "아이들이 무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에이, 전 아이들에게 강요하는 거 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대학에는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것이다. 그 바람이 있는 한, 어른들 자신이 생각하고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우리 아이들이 되어야 할 미래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부정될 수 없을 것이다. 그 미래상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성공하는 그림, 아니 최소한 아무 대학이라도 붙어서 남들이 소문나갈 일 하는 '내 아들, 내 딸'이라는 그림일 것이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그러한 성공적인 미래상의 기준을 제정하는가? 우리 아이들이 모두 대학에 잘 들어가서 인정받는 유망주가 되거나, 또는 최소한 대학은 가는 남들만큼은 해야 '잘 자란 내 아들, 내 딸'이라는 평가를 받는 기준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 내가 보기에는 어른들의 마음에서 나온 기준이다. 그리스도인도 예의

는 아니다. 소위 믿는 집안 부모들은 더 약할하다. "애들아, 너희들이 훌륭한 학교에 진학해야 주위에 모범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사실 부모들이 원하는 바일 뿐인데 거기에 신앙적 당위성까지 제공하니 우리 아이들은 빠져나갈 구멍도 없다. 만약 대학입시에 실패하면 그 아이는 세상이 쿨어주는 '실제학 막장'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덕이 되지 못한다는 '죄인 막장'까지 열게 된다.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아이들이 되어야 할 모습'이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결코 착각하지 말자.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 무엇이 최고인지 알고 있다는 교만도 버려야. 오직 예수께서만이 무엇이 최고인지 아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이들의 모습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일단은 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죄성과 왜곡성 때문에 인간은 결코 그분의 의도를 100% 알 수 없다. "하지만 믿음과 확신으로 아이들을 지도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오류투성이 지식과 믿음이 아니라 그런 우리의 오류를 초월하여 인도하시는 온전하신 예수만을 확신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겠지"라고 생각하지. 확신하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부정하며,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우리 어른들이 확신하는 대로 아이들을 몰아 간다면 우리는 정작 그들에게 뜻을 두신 하나님으로부터 아이들을 빼앗아 우리의 마음대로 만들려는 강도짓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신앙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이 갈라져 왔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뜻대로 성령의 열매(갈 5:22-23)를 맺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

강운정

(중동1부 37번)



하나님의 사랑은 크십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예배 보기에 합니다.

마음의 장미를 한 아름 안고

웃음으로 보이는 천사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못 다할 일도, 못 다할 말도 없습니다.

그분 안에서 모든 것 가능케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잔에 묻어 흘러 대지를 적시듯

자그마한 불꽃에서 나오는

큰 사랑의 화신입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이 크신 사랑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

깨닫게 해 주셔서, 아멘.

C a t e c h i s m

10. 중보자 그리스도와 자유의지에 관하여

(1) 구속 사역의 효과적인 적용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이후에 구속 사역이 성취되었으나 이 구속 사역은 창세로부터 미리 정해져 있었으므로 어떤 백성을 얻는 백성은 창세 이후로 마지막 성령의 날까지 모든 시대에 걸쳐 구원의 은총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총이 백성들 안에 사람에게서 일하게 되며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계시된 말씀과 성령의 강도하심으로 일하게 됩니다.

물음 1.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사역을 이루실 것을 창세기에서 이미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의 여인과 후손과 뱀은 각각 누구를 뜻하는 것일까요?

여인과 후손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며, 뱀은 사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후손과 뱀이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뱀이 되게 하리니 여자와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창 3:15)

물음 2. 요 6:37에서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는 모두 예수님께로 나아온다고 하였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자를 중 예수님께서 뜻하시는 자도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는 자를 결코 내로 불렀지 않으신 것이요 하셨습니다.

물음 3. 구원의 은총을 깨닫게 알게 하심을 또 믿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얻는 것임을 알게 하시며 또한 구원의 길로 친히 인도 해주십니다(고전 2:10-12).

(2) 자유의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선한 믿음을 하도록 조동되지 않았으며 또한 믿음을 잃고 악을 행하도록 결정하지도 않았습니. 인간은 선을 행하거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유적인 능력이 있었지만 반면에 죄를 지음으로 망망하여 타락할 가능성도 있었습니.

타락한 인간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사로 말미암아 죄의 면에서 해방되었고,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도록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게 하는 죄의 본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면 죄로부터의 완전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물음 1. 악에 익숙해져버린 인간은 어떠한 지경에 이르게 될까요?

사람이 악한 행위로 계속하여 빠져 들어가게 되면 결국 선을 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마 13:12).

물음 2. 죄악된 행태에서 벗어나서 빛의 자유를 얻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영접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시고, 구속함을 받은 모든 사람이 영원히 신 하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에 온전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롬 8:19-21).

(오른쪽 전도사·고동부 부지도)

성경의 열매

오바다(Obadiah)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①

'오바다'는 '주의 종' 또는 '주를 경배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바다'라는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구약성경 여러 곳에 나타납니다(왕상 18:3-16, 대상 3:21, 7:3, 9:16, 27:19, 대하 17:7, 34:12, 스 8:9, 스 10:5, 12:25 등). 하지만 그 이름들은 성경의 지자인 '오바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의 아버지가 그 때 태어난 곳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오직 그에게 대해서 기록한 것은 오직 오바다 1절뿐입니다.

오바다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먼저 그의 활동 시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즉, 블레셋과 아람이 예루살렘을 침략하던 때라면, 여호람의 통치기간 중으로(왕상 8:53-84) 엘리사와 같은 시기에 활동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던 때라면(왕상 6:50-586), 예레미야와 같은 시기에 활동한 것이 됩니다. 우리는 후자를 선택하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오바다 1절-9절과 예레미야 49:7절-22절이 상호의존적이고, 오바다 5절-6절은 예레미야 49:9와 평행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바다를 읽으시기 전에, 국외적으로는 바벨론의 부상하고, 국내적으로는 유다가 멸망하고 있는 배경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바다'를 읽으실 때에는 '이스라엘과 에돔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읽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에돔'이 '유다'를 괴롭혀 하는 것은 단지 '오바다' 시대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돔'은 '예스'의 후손이고,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 두 민족 사이에는 반목의 역사가 반복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민족의 조상인 대 속에서 싸우거나(창 25:20-23), 출생하면서 다무고(창 25:24-26), 장자권에 대한 싸움을 하기도 했습니다(창 25:27-34). 또한 에돔과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막았고(민 20:14-21), 사울은 에돔과 전쟁을 치렀으며(삼상 14:7), 다윗은 에돔을 종으로 삼기도 했습니다(대하 8:13-14). 에돔 또한 완고과 모암과 연합군을 형성하고(대하 20:1-23), 유다를 대항하여 싸웠습니다(대하 28:17). 이렇게 에돔과 유다는 같은 시기에 멸망하기까지(A.D. 70년), 두 민족간의 반목은 지속되었던 것입니다(가나 두 민족간의 관계는 창 27:41-45, 32:1-21, 33:6, 출 15:15, 신 21:6-6, 23:7, 시 52번, 왕하 8:20-22, 14:7, 시 83번, 겹 35장, 유 3:18-19, 14:11-12, 9:12 등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주에 계속)

김동현 목사(세한교회 지도)

교 회 소 식

알림

- 구제헌교 오늘 1부-5부 예배시 드림니다. 기도과 정성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모임

- 장로회 새벽기도회
일시: 26(일) 새벽기도 후
장소: 교우관 109호
- 안수집사 회교 새벽기도회
일시: 27(월) 새벽기도 후
장소: 교우관 109호
- 교구위원회 월례회
일시: 오늘 15:30
장소: 노혜경 집사택
(수서역 하차 2번출구, 안아름교회102-103 ☎99-4311)
- 남나진도회 연합 월례회
대상: 각 구역, 부회장
일시: 오늘 15:15
장소: 캄반홀
- 교정전도회 월례회
일시: 오늘 15:00
장소: 매추리길목
- 권사 4차 월례회
일시: 28(일) 주일 1부 예배 후
장소: 영아부실

남나진도회

- 바울 3차 월례회
일시: 26(일) 새벽기도 후
장소: 교우관 205호
- 바울 12차 월례회
일시: 오늘 교구모임 후
장소: 영아부실
- 바울 17차 월례회
일시: 12월 24일(다움주일) 15:00
장소: 교우관 401호
- 베드로 5차 월례회

- 일시: 오늘 15:00
장소: 신촌가정부실
- 베드로 10차 월례회
일시: 26(일) 19:00
장소: 방학동 두두마을
- 예수 10차 월례회
일시: 오늘 교구모임 후
장소: 복지촌 지하1층
- 예수 12차 월례회
일시: 오늘 15:00
장소: 캄반홀
- 루디아 7차 월례회
일시: 27(월) 11:00
장소: 대림교회
- 루디아 13차 월례회
일시: 26(일) 11:00
장소: 노혜경 집사택
(수서역 하차 2번출구, 안아름교회102-103 ☎99-4311)
- 마리아 5차 월례회
일시: 27(월) 11:00
장소: 영아부실
- 마리아 7차 월례회
일시: 27(월) 11:00
장소: 관학성당

발세

1. 순민회 타고권사
(오순도 피떡 안수집사 모친, 마현이 장사차 시로, 1교구 반포1구역) / 14일 별세, 16일 장례

물론

1. 최광민 군(최봉진 성도, 강석록 집사의 아들, 2교구)와 김미아 양(김정희 씨, 남촌초 씨의 딸) / 12월 1일(토) 12:00 재경해당

12월 주일 및 수요일 예배 기도 담당

월	일	주일 예배 (점무)					찬양 예배 (만수교회)	수요일 예배 (권사)	
		I	II	III	IV	V		I	II
12	2	김영달	이성호	황완만	김구형	최명환	이인광	한경화	박부미
	9	조종환	안동현	오진국	박덕양	이태식	김영록	정은숙	유재훈
	16	정대두	박찬성	배승진	최유덕	이창호	정윤성	염순현	한영덕
	23	이계인	박종규	김광남	황일영	이갑재	함철수	조 속	이정숙
	30	김진용	남선우	김재명	김진관	박진진	전문배	문운석	윤정식

- 주수 2층 예식실 ☎517-7070
- 백운동 군(백영환 집사, 임영정 집사의 아들, 17교구)과 임희정 양(임무송 씨, 용정초 씨의 딸) / 12월 1일(토) 13:00 샌트럴시티 배당동 5층 제2출구
 - 안디 황 군과 김주정 양(김동현 집사, 강성자 집사의 딸, 14교구) / 12월 1일(토) 15:00 조상성 위임교회

주수전경

1. 서화자 권사, 김재순 설도 경기도 세원시 구정읍 마북로 143 우 공화타운 신창동 ☎102-1107 ☎31-287998/305-0402
2. 김준은 안수집사 강남구 대치동 909-14 302호

수화인양발표

- 일시: 오늘 15:00
장소: 캄반홀

군전도회 결산총회

- 일시: 11월 30(토) 16시
장소: 배다니홀

중년전도회에서 일할 분

- 지역: 각 지역별 전도부서 58세 미만
문의: 사무국 ☎552-8200 2406

다름주 새벽기도회 기도 담당

26(월)	27(화)	28(수)	29(목)	30(금)	12(토)	12(주일)
전종용	정윤환	박종태	주병강	홍성욱	김현식	조옥자

군 북부 중년 형제들에게 성탄선물을

성탄절을 맞이하여 군안 군전도회에서는 군에 북부 중년 형제들과 성탄의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족 중 군에 북부 중년 형제들을 주소를 11월 30일까지 군전도회로 비치된 소정의 양식에 기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소식은일



예배 안내

구분	시간	장소
주일예배	I 오전 7:00	본당
	II 오전 9:00	본당
	III 오전 11:00 (주례: 최영환 목사)	본당
	IV 오후 1:00(아침 10:00) 주일학교	본당
	V 오후 3:00 (예배: 노혜경 목사)	본당
찬양 예배	오후 5:00	본당
수요 예배	1:00(토) 오후 7:00	본당
교우 집회	오후 7:00	본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당

성 · 기 · 는 · 분 · 들

■ 위임목사 김성관

■ 사무장

- 김희철 조진근 김은호 노경현 오진국
신도회 2차부 2차부 2차부 2차부 2차부
이병학 윤인현 최태현 엄필성 강도용
신도회 2차부 2차부 2차부 2차부 2차부
오정현 이 훈 남선우 정은숙 김영덕
신도회 2차부 2차부 2차부 2차부 2차부
문종우 조진근 김진우 최부근 김치석
신도회 2차부 2차부 2차부 2차부 2차부
이창호 차진득 김재명 박영식 김광남
신도회 2차부 2차부 2차부 2차부 2차부
이성철 윤정철 이현 박인진 김인관
신도회 2차부 2차부 2차부 2차부 2차부
이병욱 안종욱 최명환 임무진 이종섭
신도회 2차부 2차부 2차부 2차부 2차부
최기홍 이갑재 전종용 전종필 이경우
신도회 2차부 2차부 2차부 2차부 2차부
정종식 김한기 원윤철 이형수 안현현
신도회 2차부 2차부 2차부 2차부 2차부
황만만 김구형 최영덕 이계인 박덕양
신도회 2차부 2차부 2차부 2차부 2차부
이태식 정대두 박종규 권명옥 조종환
신도회 2차부 2차부 2차부 2차부 2차부
배준식 김광달 이철호 박찬성 최희준
신도회 2차부 2차부 2차부 2차부 2차부
노경현 박진규 정경진 신상수 강정철
신도회 2차부 2차부 2차부 2차부 2차부
고재승 김영은
신도회 2차부 2차부 2차부 2차부 2차부

■ 부목사

- 이종섭 이종태 정현민 김동주 차재훈
신도회 2차부 2차부 2차부 2차부 2차부
김병태 서광진 정재성 이준경 박인근
신도회 2차부 2차부 2차부 2차부 2차부
여성기 류병희 노경록 이종철 김영준
신도회 2차부 2차부 2차부 2차부 2차부
여국구 김교성 송광환 이수근 이윤진
신도회 2차부 2차부 2차부 2차부 2차부
안정덕 방준영 나영평 정진호 김용덕
신도회 2차부 2차부 2차부 2차부 2차부
이성욱 고광환
신도회 2차부 2차부 2차부 2차부 2차부
- 찬양감독 강인규
- 여전도사
- 정연희 김정자 송향자 신동자 윤인숙
신도회 2차부 2차부 2차부 2차부 2차부
김국순 현영준 김진석 홍순애 이옥주
신도회 2차부 2차부 2차부 2차부 2차부
김만자 안태순 최희성 백명자 김정현
신도회 2차부 2차부 2차부 2차부 2차부
조옥자 강필경 김성진 강영주 최원준
신도회 2차부 2차부 2차부 2차부 2차부
- 교정전도사 박영덕
- 선교사 최은자(신도회)
- 협력선교사 하효섭(신도회)

2001년도 제6차 학습세례식 안내

날짜	시간	학습자	장소	세례자, 개종자, 입교자	장소	유아세례자	장소
12월 2일 (주일)	1교시 15:00-15:50	성경개요 (정현민 목사)	314호	교우관 (사경진 목사)	307호	교우관 (사경진 목사)	307호
	2교시 16:00-16:50	기독교 (정재성 목사)	314호	구원관 (이종태 목사)	307호	구원관 (이종태 목사)	307호
12월 9일 (주일)	1교시 15:00-15:50	기독교개요 (이준경 목사)	407호	세례관 (김병태 목사)	307호	유아세례관 (이종섭 목사)	314호
	2교시 16:00-16:50	문답	교구별 장소	문답	교구별 장소	유아세례관 (이종섭 목사)	314호
12월 16일 (주일)	찬양예배 성인 학습·세례식 (자녀 찬양예배, 분당)						

2001년도 하반기 정기감사 실시

근년도 하반기 정기감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각 부서의 회계는 아래와 같이 감사자료를 준비하여 11월 중에 감사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대상기간: 2001년 1월-9월
2. 대상기관: 각 위원회 선하 전 부서
단, 남나 진도회는 제외
(군·경찰·교정·실업인·이민·학원 등 특수전도회는 본 감사를 수감할 것)
3. 제출서류: 시·시산(2001년 1월부터 9월까지 전제시산표),
군·진출납부, 원장, 영수증 등 증명서, 시제 현금 등 예금증명서(포함)
4. 감사실시기간: 2001년 11월 마지막 주일까지 5. 감사실시장소: 제1교육관 208호 감사위원회실(354)

새 · 가 · 족 · 을 · 한 · 영 · 합 · 니 · 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959	이영복	1	바울	968	김이향	19	청년부		
960	최영선	1	에스더	969	박종진	19	청년부		
961	김정남	1	바울	970	배종진	19	청년부		유복식(2)
962	정종자	1	루디아	971	홍종현	3	에스더		한윤호(3)
963	이미숙	2	청년부	972	주영남	5	루디아		
964	김수미	3	청년부	973	박정진	19	대학부		
965	최진일	5	베드로	974	이영미	12	청년부		정인식(12)
966	이재경	8	청년부	975	홍지연	19	장로회		김정현(5)
967	조지하	19	중동부	976	김정자	19	청년부		김재현(8)